

# “80년 광주를 체험했던 시민들이 쓴 작품”

장편 '소년이 온다' 번역 출간...영미권서 주목 받는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



“제가 작품을 썼다기보다 소설 속 주인공인 소년과 80년 광주를 체험했던 시민들이 작품을 썼다고 본다. 글을 쓰는 동안 저의 삶을 온전히 그분들께 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다.”

광주의 5·18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의 소설이 최근 영미권에서 번역출간돼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 출신(46)으로 2005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한 작가는 그동안 인간 존엄과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토대로 한 소설을 써왔다.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 작가는 작품을 쓰게 된 배경, 해외 번역 출간, 향후 작품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그녀는 “장편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는 열세 살 때 아버지(소설가 한승원)가 보여

## 13살때 사진첩서 본 ‘광주 학살’이 모티브

“인간성에 대한 질문 출발점”... 가디언 호평

## 소설 ‘채식주의자’도 뉴욕 타임즈 등서 찬사

해외 인기 한국 작가 계보 이을 기대주 ‘주목’

준 사진첩이 계기가 됐다”며 “그 사진첩에는 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된 이들의 참혹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한 작가는 비록 십대의 나이였지만 그 사진첩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은 어떠한가 하는지를 숙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녀가 인간의 폭력과 잔혹함, 그로 인한 상처와 회복의 문제에 전착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 작가의 소설은 치밀한 구성, 섬세한 감수성, 울림 있는 주제의식이 절묘하게 교직돼 있어 독특한 아우라를 발한다. 문단 안팎에서는 장인정신에 근거한 글쓰기가 한강을 차세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평가다.

한 작가는 “‘소년이 온다’는 80년 광주의 이야기이지만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국가나 지역에만 한정할 수 없다”면서 “인간 존엄에 대한 보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질문과 사유를 던져준다”고 강조했다.

‘소년이 온다’는 5·18 당시 시위대 속에 있었던 친구의 시신을 찾는 한 소년의 이야기다. 폭력적인 진압을 핵심사건으로 서사가 전개되지만 이후 펼쳐지는 저항과 고문 등도 현장감 있게 다뤄진다. 한 작가는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와 밀도 있는 문장으로 ‘현장감’을 절절하면서도 아름답게 풀어낸다.

최근 영미권에서 번역된 ‘소년이 온다’(2014년)와 ‘채식주의자’(2004년)가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주제의 보편성과 시적

인 문제가 주는 예술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영국 가디언은 ‘소년이 온다’에 대해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다룬 소설로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뉴욕 타임스는 ‘채식주의자’에 대해 “초현실주의에 뿌리를 둔 폭력적이고 관능적인 소설”이라고 평했다. 미국의 출판저널 퍼블리셔스 위클리도 ‘채식주의자’를 올해 가장 기대되는 소설로 꼽기도 했다.

‘채식주의자’는 폭력적인 삶을 거부하기 위해 육식을 단절하고, 그로 인해 점차 죽음에 다가가는 한 여성을 그리고 있다. 한 작가는 “폭력과 인간 존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이 온다’와 ‘채식주의자’는 유사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의 호평은 한강이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작가의 계보를 이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 작가는 “무엇보다 좋은 번역가를 만난 것 같다.

번역을 했던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 씨는 상당히 ‘문학적인’ 분이였다”고 공을 돌린다. 이어 “스미스 씨는 한국어 번역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할 만큼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번역을 했던 영국인 데보라 스미스 씨는 상당히 ‘문학적인’ 분이였다”고 공을 돌린다. 이어 “스미스 씨는 한국어 번역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할 만큼 우리나라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스미스 씨는 번역 과정에서 한강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드백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작가는 “번역자와의 상호작용 외에도 좋은 출판사, 편집자를 만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년이 온다’는 국내 문학 출판계의 불황 속에서도 출간 후 현재까지 5만여 권이 판매됐다. ‘채식주의자’는 발간된 지 10년이 되어 판매량이 많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판매가 10배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한국문학은 사회문제나 남북 문제를 사실적인 기법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생각하지만, 섬세하면서도 신비로운 한강의 소설 번역출간을 계기로 한국문학을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창작 계획에 대해서도 한 작가는 답답하게 밝혔다. “오는 6월 즈음에 시도, 소설도, 산문도 아닌 작품을 하나 낼 계획이다. 다소 명확하게 장르를 규정하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소설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강은 29일 서울 스페인 대사관에서 열린 제41회 서울문학회에 초청돼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저에게 소설 쓰기는 서성거리는 일과 비슷하다. 저는 천천히 계속 쓸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내 방식으로 더듬어 가는 일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드라마 ‘밀회’의 그 피아니스트

### 신지호 광주 콘서트



12일 오후 7시 문예회관 대극장

화제를 모은 드라마 ‘미즈 인더 트랩’에도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피아니스트 신지호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광주에서 콘서트를 갖는다. 12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피아니스트, 작사·작곡·편곡가, 뮤지컬·영화OST 음악감독,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이번 공연에서 감미로운 연주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4살 때 피아노를 시작한 그는 인디애나 주립대와 버클리 음대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으며 2010년 1집 앨범 ‘Ebony And Ivory’로 데뷔했다.

이후 장근석이 주연을 맡은 ‘사랑비’ 등에 출연한 그는 아이유, 소녀시대, 씨엔블루, 수퍼주니어의 헨리, 정엽, 소향 등 많은 뮤지션들과의 콜라보 무대를 선보였으며 한국 최초 액터 뮤지션(배우가 노래, 연기, 연주를 모두 소화) 뮤지컬인 ‘모비딕’의 주인공을 맡기도 했다. 문의 16000-45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홀로그램 전용관·미디어아트 체험관 만들자”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관광 기반 구축 사업’ 자문회의

광주문화재단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 구축 사업’ 관련 자문회의에서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홀로그램 전용관 조성 등이 제안됐다.

포럼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자문회의에는 미디어아트 작가, 지역개발, 도시문화, 미디어기술·기획, 문화 관광 스토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 을지로와 신가포트 센토사에서 홀로그램 전용관 ‘K-live’를 운영하고 있는 KT 미래사업개발단 이미연 상무가 참석, 사업 협력 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내 홀로그램전용관,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아트체험

관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 상무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옥상에 홀로그램 성화 조성 등 미디어아트도 광주를 알리는 데 돕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진식 문화창조융합본부 부단장이 ‘문화창조융합센터’, 대전발전연구원 이형복 책임 연구원이 ‘대전 멀티미디어거리의 조성·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융복합 콘텐츠 기획·유지관리 중요성을 조언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올해 ‘미디어아트 관광레저 기반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 사업을 빛고을시민문화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를 미디어아트 전시·체험·공연·인큐베이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20억원이 투입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극단 ‘청춘’ 신입단원 모집 18일까지 신청서 접수

극단 청춘(대표 오설균)이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1989년 창단한 청춘은 창작극 ‘만월’, ‘그와나’, ‘페르조나’ 등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20세 이상 남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입단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극단 청춘 카페

(cafe.daum.net/cctheater)에서 내려받아 이메일(cctheater@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면접과 오디션을 거쳐 단원을 선발한다. 마감은 오는 18일까지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